2019. 3. 13. (수) 언론보도

인천일보

2019년 03월 13일 (수)
종합 01(경기판)면

응답하라 北-남북평화마라톤 열리나

경기도, 개최 동의서 기다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평화마라톤'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미 평화협력 분위기 조성에 도화선 될까.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월 27일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념해 파주와 개성을 오가는 평화마라톤 대회를 북측과 함께 연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는 이번주 안에 북측에서 대회 개최 동의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도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교류에 제동이 걸렸지만, 북측과 평화마라톤 개최를 위해 지속적인 물밑접촉을 벌여왔다.

이번 주 안에 북측에서 대회개최 동의서가 도착하면 도는 남북평화마라톤 개최 계획서와 함께 통일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도의 남북평화마라톤 개최 계획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측에 보내 대북 물품 반입 등 제재 면제 등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물품 반입을 허용하면서 도의 이 같은 계획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남북평화마라톤은 경기도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풀코스와 하프코스 등 남북의 마라토너와 방문객 등 2만여명이 파주~개성까지 달린다.

도 관계자는 "지난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 차원에서 북측과 끊임없이 접촉을 하고 있다"면서 "남북평화마라톤이 갖는 큰 의미가 있다.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s3858@incheonilbo.com

경기신문

2019년 03월 13일 (수)
종합 01면

이재명표 'DMZ 공연예술 클러스터', 김포에 조성

550㎡ 소규모 야외공연장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낙점
북한 공연단도 초청 계획
하반기 설계용역 돌입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 DMZ 공연예술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김포·연천·파주 등 3곳의 후보지 가운데 김포 애기봉 생태평화공원을 DMZ 공연예술 클러스터 조성지로 선정했다.

이 클러스터는 남북 화해 무드 속 경기북부 개발을 겨냥한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공약중 하나다.

DMZ 인근에 공연예술 인프라를 조성, 독일의 라이브 인 베를린 같은 '라이브 인 DMZ' 등의 평화공연의 장으로 만든다 계획이다.

550㎡ 규모의 소규모 야외공연장으로 조성되며 문화예술 공연, 청년창작, 창업공간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또 북한 공연단의 초청 공연장소 등으로도 쓰일 예정이다.

현재 DMZ 내 공연장은 파주 임진각 관광지의 대규모 야외공연장 하나 뿐이다.

클러스터 조성에는 총 10여억원이 투입되며 상반기 중 운영계획 등을 확정한 뒤 하반기에 설계용역에 들어가게 된다.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한국전쟁 당시 남북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154고지로 평화와 안보의 의미도 담긴 곳이다.

노후화된 애기봉 전망대의 경우 2017년 11월 철거 후 새로운 전망대와 평화생태전시관 확공에 들어가 올 하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DMZ 공연예술 클러스터는 소규모 야외공연장으로 임진각 내 대규모 공연장을 분산시켜 공연할 장소로 마련하는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 설계용역을 진행한 뒤 빠른 시일 내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월한기자 dudnjsgus19